

고흥, 동남아 수출개척단 1100만달러 규모 성과

LOCAL

2025년 4월 1일 화요일



공영민 고흥군수가 태국 방콕 파라다이스 물에서 열린 고흥 김 판촉 행사에서 직접 고객들에게 사은품을 나눠주며 고흥 농수산물 홍보하고 있다.

인니·태국·베트남 방문...김·미역·유자 등 수출협약 체결 공영민 군수, 농수산물 수출 CEO 역할 강화 등 광폭 행보

공영민 고흥군수를 필두로 한 고흥군 동남아 수출개척단이 1100만달러에 달하는 성과를 올리며 지역 농수산물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역할을 했다.

31일 고흥군에 따르면 동남아 수출개척단을 구성해 최근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을 방문하고, 고흥산 김과 미역, 유자 가공품 등 농수산물의 110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고흥군은 김 수출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자바슈퍼푸드(대표 필립베)와 500만

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고흥산 김과 인도네시아 가쓰오부시를 결합한 김자반 제품을 생산해 한국,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중동, 아프리카 등 다양한 글로벌 시장에 판매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태국 방콕에서는 지두방아시아(대표 임준희)와 100만달러 규모의 임점 협약을 체결하고, TMK(대표 강병수)와 200만달러 규모의 마른김 수출협약도 성사시켰다.

지난 2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현지 유

업체인 동양농수산(대표 홍덕자)과 총 300만달러 규모의 농수산물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고흥 쌀과 나물류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이 협약으로 고흥군은 쌀 20t을 베트남에 수출하게 됐으며, 이는 베트남과 같은 세계적인 쌀 생산국에서도 고흥 쌀의 품질이 경쟁력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군은 현지 소비자들에게 직접 다가가기 위한 판촉 행사도 진행했다. 지난 22일 태국 방콕의 파라다이스 물에서는 고흥 김을 홍보하고 사은품을 제공하는 특별 판촉 행사를 열었으며, 행사 시작 20분 만에 고흥 김부각 등이 완판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베트남 하노이 원마켓에서는 고흥산 쌀과 나물, 김을 활용한 김밥 시식 행사를 열었고, 현지 소비자들은 신선한 재료와 김

은맛을 호평하며 한국의 맛을 경험했다.

군은 단순한 수출 계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현지 네트워크 구축에도 집중했다. 인도네시아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인 인도네시아 지방정부회(APKASI)를 방문해 무시 라와스군 피 수하르프니 군수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협의를 통해 고흥군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실질적인 협력 거점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경제 협력을 통해 농수산물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농어업인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고흥 농수산물 판매의 선봉장 역할과 행정의 책임자로서 앞으로 더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gwangnam.co.kr

박명성 나주영산강축제 총감독 재위촉 수준 높은 연출·콘텐츠 기획... 축제 흥행 공식 정립

지난해 나주영산강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박명성 총감독이 올해도 나주 대표축제 지휘봉을 잡는다.

31일 나주시에 따르면 청사 소회의실에서 2025 나주영산강축제 총감독에 박명성(우)을 비롯해 예술감독을 재위촉했다.

2025 나주영산강축제추진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지난해 축제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박명성 총감독의 리더십과 연출력에 호평하며 다시 한번 총감독직을 맡겼다.

위촉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과 박명성 총감독, 최기복 나주영산강축제추진위원장, 김관선 부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해남 출신의 박명성 총감독은 1982년 연극배우로 문화예술계에 발을 디뎠다. 이후 40여년 간 무대감독, 연출가, 공연 프로듀서로 활동했으며 현재(우)인 시킨퍼니 예술감독을 역임 중이다.

그는 지난해 2024 나주영산강축제에 앞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2023), FIFA U-20 월드컵 개막식(2017),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폐회식(2015) 등 총감독을 역임하며 대규모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다.

박 감독은 보다 수준 높은 무대 연출과 오직 나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축제 콘텐츠를 기획해 나주 축제 흥행 공식을 정립한다는 각오다.

박명성 총감독은 "지난해 시민과



윤병태 나주시장(오른쪽)이 오는 10월 8일 개최하는 2025 나주영산강축제 총감독에 박명성(우)을 비롯해 예술감독을 재위촉했다.

관광객들이 보여주셨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며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발전시키고 무엇보다 시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축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병태 시장은 "박명성 총감독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올해는 어떤 축제를 보여줄지 기대가 크다"며 "2025 나주영산강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 도약과 500만 관광 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오는 10월 8~12일 5일간 영산강 정원 일원에서 2025 나주영산강축제를 개최한다. 축제는 지난 해처럼 군소 행사를 축제 기간 연계하는 통합축제로 열릴 예정이다.

나주=조원환 기자 pose007@



산불예방의 시작 '영농부산물 파쇄' 광양시는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회원과 산불진화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부산물 무료 파쇄 지원사업을 본격 운영하기 위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안전교육 실시 후 발대식과 캠페인을 가졌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농촌 고령화로 영농부산물 소각처리로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진제공=광양시

전라좌수영 득제·수군출정식 여수 중앙동 이순신광장서 재현

이순신 장군이 출정 전에 지냈던 제사인 전라좌수영 득제와 수군출정식이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에서 재현됐다.

31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시작된 득제 및 수군출정식은 오는 11월 8일까지 무더위가 한창인 7·8월을 제외한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진행된다.

4월부터는 매일 1·3주 토요일에, 10월은 1·4째주, 11월은 2째주 등 총 12차례 열린다.

4월 말 재개관 예정인 국보 진남관이 문을 열기 전까지 이순신광장과 해양공원 일원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는 역사적 고증을 강화해 관객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연출된다. 여수시립국악단을 중심으로 1부 전라좌수영 득제례와 2부 군정(군사적 행사) 및 수군출정식으로 구성되며, 이순신광장에서 시가 행렬 후 진남관에 도착해 마무리 공연으로 이어진다.

'전라좌수영 득제'는 임진왜란 중 이순신 장군이 출정하기에 앞서 전승과 국난 극복을 기원하며 독기(藏旗)에 드린 제사다. 지난 2007년 정부 전통예술 재현 복원 사업 1호로 선정됐으며 여수시는 이를 문화예술 브랜드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라좌수영 득제가 올해는 풍성한 볼거리로 작년보다 더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며 "시민과 관광객에게 호국·충효의 고장 여수의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브랜드 사업으로 발전시켜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화순 쌍봉사, 전남 세계명상관광 거점 우뚝

'꽃 명상' 등 콘텐츠 운영 명상·힐링 관광 최적화



화순 쌍봉사가 전남 세계명상관광 거점지로 도약한다.

화순군은 전남도가 주관한 '2025 남도천년사찰 세계명상관광' 공모에서 화순의 대표적인 천년고찰 쌍봉사가 최종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남도 천년사찰 세계명상관광 공모사업은 전남의 유서 깊은 사찰을 활용해 세계적인 명상 관광지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도내 여러 사찰이 응모해 경쟁을 펼친 끝에 쌍봉사가 선정됐다.

이번 사업으로 쌍봉사는 2025년 하반기에 '꽃 명상' 프로그램, 차담 프로그램, '쌍산의소 경기' 프로그램 등 특색 있는 명상관광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유서 깊은 사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자연과 어우러진 고즈넉한 분위기를 지녀 명상과 힐링 관광에 최적화됐다.

특히 쌍봉사는 국보인 철강선사탑과 다수의 보물을 품고 있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는 사찰이다. 또한 계단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어 사찰을 둘러싼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주민 의견 조사를 통해 화순 9경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객이 사찰에서 깊이 있는 명상과 힐링을 경험하고, 지속 가능한 명상관광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프라를 확충해 세계적인 명상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방침이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직원과 고객, 더불어 성장하는 주식회사 노아

시설물유지관리, 건축공사, 금속철구조공사, 도장공사, 방수공사

육상방수공사

물탱크도장공사

화장실공사

인중 및 특허 사회적기업인증서, 시설물유지관리 전문건설업등록증

공공기관 실적

- 목포시 수영장물정비사업 부분보수
- 전남체육고등학교 웨이트트레이닝실 벽체보수공사
- 목포교육지원청 유치원교실 비파보수공사
- 신안교육지원청 정산초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심함배수장의 보수공사
-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스타트업 보육실 인테리어공사
- 여수지방행정민청 거문도등대 태풍피해 복구공사
- 무안군청 심향교 복원교 교량보수 정비공사

노아건설(주)
전남 목포시 연산백령로 1번길 51 ☎ 061-285-6100